

31번째, 농기구이야기

수확한 벼 알곡을 훑는 연장 ‘홀태’



<홀태> , 脫穀機, Thresher, 농업박물관소장.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0.10.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NH NongHyup

1. 홀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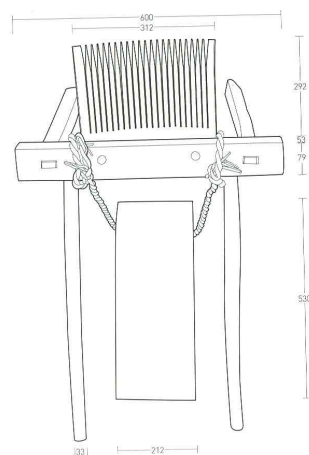
홀태는 촘촘한 날 사이에 벼꼬리뿔 따위의 이삭을 끼워 넣고 훑어내는 농기구이다. 홀태는 ‘훑다 → 훑+애 → 훑애 → 홀태’로 훑어낸다는 의미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의 문신 서호수(徐浩修)가 편찬한 《해동농서 海東農書》의 ‘그□□(稻箒)’나 1886년 정병하의 《농정촬요 農政撮要》의 ‘도발(稻拔)’은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지역에 따라 ‘기네’, ‘베홀깨’, ‘홀챙이’, ‘치게’, ‘청치기개’, ‘찌깨’, ‘침치’, ‘왜홀태’, ‘벼훑이’, ‘호리깨’, ‘그네’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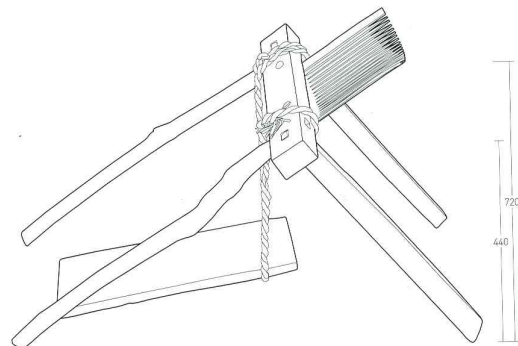
2. 홀태의 형태

홀태는 수확한 벼 알곡을 훑는 농기구로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는 발달된 농구구의 형태이다. 그 형태는 길고 두툼한 각목의 앞 □뒤쪽에 네 개의 다리를 달아 가위다리 모양으로 떠받치게 하고, 빗살처럼 날이 촘촘한 쇠로 만든 틀을 끼운 몸체에 가위다리 모양으로 네 개의 다리를 달아 떠받치도록 하였다. 무게가 가벼우므로 작업할 때 들러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몸체에 줄을 묶고 발판을 걸쳐, 일하는 사람이 발판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발판 위에 돌을 올려놓아 홀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탈곡의 원리는 촘촘한 빗살 사이에 벼 이삭을 넣고 잡아당기어 내며 벼 이삭이 떨어지는 것으로 벼 이삭을 훑어 내는 원리이다. ‘벼훑이’를 여러 개 나열한 것과 같은 형태이다. 홀태를 이용하면 하루에 벼 5~6가마 정도를 털어 낼 수 있다고 한다.



정면



측면

3. 터는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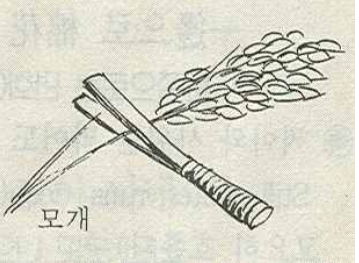
한 해 농사의 마무리는 곡식을 털고 고르는 일로써 음력 9월 무렵이 된다. 터는 연장으로서는 홀태 이외에도 개상 □도리깨 □벼훅이 등이 있다. 최근에는 경운기에 연결한 탈곡기, 수확기와 탈곡기를 겸한 콤바인까지 등장하였다.

개상은 수확한 벼단이나 보릿단을 자리개(벼단이나 보릿단을 감는데 사용하는 줄)로 감아 잡고 세차게 내리쳐 곡식의 낱알을 떨어낸다. 도리깨는 곡식의 이삭을 두드려 알곡을 떨고, 벼훅이는 대쪽 둘을 맞붙여 묶어서 벼이삭을 한 가닥씩 훑어서 낱알을 뜯어낸다.

가을걷이가 넉넉지 않은 서민층에서는 개상을 따로 만들지 않고, 절구로 대신한다. 개상질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지지 않는 곡식이 있게 마련이다. 곡식이 귀했던 옛적에는 이것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벼훅이’로 떨어내었다.

이와 같이 이들 연장은 모두 곡식을 터는 연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그 이용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터는 연장과 그 사용방법>

		
<개상>	<도리깨>	<벼훅이>
		
<개상>의 사용모습	<도리깨>의 사용모습	<벼훅이>의 사용모습

4. 홀태의 역사

홀태는 벼 이삭을 훑어 내는 기구로 그 시원은 ‘벼훑이’에서 찾을 수 있다. ‘벼훑이’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하여 ‘가락홀태’라고도 하였고 ‘손그네’, ‘손홀깨’, ‘홀태’, ‘벼치기’라고도 불렀다.

청동기시대에는 벼를 수확할 때 돌칼로 이삭의 모개미(목)를 잘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줄기와 껍질이 질긴 벼를 거둘 때는 마땅치 않았다. 보리나 수수같은 곡식은 이삭째로 절구에 넣고 찼으면 줄기는 물론이고 껍질도 같이 벗겨지지만 벼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손가락 사이에 넣고 이삭을 훑어보았더니 잘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벼훑이’이다.

<터는 연장의 발달과정>



‘벼훑이’는 나중에 ‘손홀태’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 ‘홀태’로 발전하게 된다. ‘홀태’는 ‘손홀태’보다 빗살 개수가 많아 좋고, 또 두 손을 모두 벼를 잡고 훑는데 쓰니까 한 손만 쓰는 ‘손홀태’보다 손쉽게 더 많은 낱알을 얻을 수 있었다.

빗살은 처음에는 널빤지를 다듬어 만들었지만, 일제시기 때 쇠붙이 빗살과 나무에 굵은 철사를 촘촘히 박은 빗살이 일본에서 들어와 쓰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따

로 일러 ‘쇠 홀태’ 또는 ‘왜 홀태’ 라고 했다.

‘홀태’의 다른 명칭 ‘그네’라는 이름은 조선 시대에 나온 《해동농서》라는 책에 처음으로 실렸었다. 그때까지는 곡식을 떨어낼 때 ‘개상’이나 ‘텃돌’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벼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천석군, 만석꾼으로 불리는 쌀부자가 많이 생겼다. 벼농사가 적어 타작거리도 얼마 안 되는 농부들은 여전히 개상질로 타작을 했지만, 쌀부자들은 많은 벼를 타작할 때 새로운 농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궁리 끝에 ‘홀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보리나 조와는 달리 ‘도리깨’로는 벼의 알곡을 떨어 내지 못하므로 ‘홀태’와 같은 훑는 방법으로 탈곡하게 되었다. 이 훑어 내는 원리가 발달하여 원통형 답단식 탈곡기가 개발되고, 그 이후에는 동력을 이용한 탈곡기로, 요즘에는 콤바인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민족의 사진첩』, 서문당, 1994.

이순수, 『농기구』, 보리, 2009.

양효인, 『농가월령가』, 예원, 2001.

박호석·안승모, 『(傳統 農耕의 歷史)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2001.

박일환, 『우리말 유래 사전』, 우리교육, 1994.

조흥윤, 『민속에 대한 기산의 지극한 관심』, 민속원, 2004.

최석로, 『사진으로 본 조선시대-민족의 사진첩Ⅱ』, 서문당, 199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의 미-19』, 중앙일보사. 1985.